부산 9개 공공기관 국유지에 스마트팜 개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남구 감만동의 한 주택가 인근 국유지에 'BEF 스마트팜 5호점'을 열었다. '스마트팜'이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IT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시설이다.

부산 사회적경제지원기금(BEF)을 통해 개점한 이번 'BEF 스마트팜 5호점'은 유휴 국유지를 도시농업시설로 탈바꿈해 활용도를 높인 첫 민간 협업 사례다. 냉동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건물을 세웠다. 고부가가치 작물인 저온성 표고버섯을 생산할 예정이다.

BEF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이다. 9개 공공기관은 BEF를 통해 지역사회 내 스마트 농업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도시 영상 공모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청년이 살고 싶은 금융도시, 부산'을 주제로 2022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영상 공모전을 연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뮤직비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으로 2~3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제작한 영상파일, 참가신청서, 제출서류를 6월 20일부터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phong@kbfc.or.kr)로 제출해야 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평가해 대상 300만 원(1개), 최우수상 200만 원(2개), 우수상 100만 원(3개), 장려상 50만 원(4개) 등 모두 10개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작품은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부산금융중심지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 문의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051-631-0295·7)

부산시, 지역 제조업 이끌 인재 키운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2년간 100억 원 투자

부산광역시가 지역 제조업 분야를 이끌어나갈 고급 인력 양성에 나선다.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선정, 2년 동안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특화업종별로 실습과정과 시설 등을 구축하고, 기존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교육 지원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부산산학융합원과 한국해양대·신라대·동아대·부산과학기술대학 등 4개 대학과 함께 △재직자 직무 전환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제조 관련 융복합 학점 과정 개발 △지역 특성화고 연계 교육 개발 등 총 4개 분야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지능형 기계부품 소재 등 3개 분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과 기업 혁신 성장 견인을 위한 '클라우드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41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산학융합원과 한국해양대·동아대·신라대·부산과학기술대에 각각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교육 내용을 온라인으로 연계·공유해 활용하는 형태다.

부산산학융합원에 금속 3D프린터, 설계 장비와 설계 및 구조해석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한국해양대 등 4개 대학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억 원을 들여 '스마트 제조업 구현을 위한 전문 분야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재직자 교육과정인 직무능력 향상과정(연 300명)과 신규 채용 양성과정(연 250명)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의 역내 취업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와 지역 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결성해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 전환과 기업 성장,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산단 주변 공기, 더 맑고 깨끗하게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187억 원 들여 오염물 저감

부산시가 신평·장림산단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산단 환경 개선에 나선다(사진은 아미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신평·장림산단 모습).

부산지역 산단 주변 공기가 더 깨끗하게 바뀐다. 부산시가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산단에 오염물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인프라 구축에 3년간 국비 97억 원 등 모두 18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화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한다. 부산시는 신평·장림 산단을 시범 사업지로 지정하고 3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산 산단 환경개선지원센터'를 구축,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의 발생원이 여럿 모여 오염도를 높이는 '면오염원'을 분석·대응해 대기오염을 막는다. 산업단지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질 측정 장비와 현장검증 장비를 구축해 대기질 정밀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맞춤형 저감 대책 공급 △저감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등의 장비 활용 지원 △지역 기업 대상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련 표준화 제안을 통해 기업이 관련 환경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